

한-독 예술가들 '터닝 포인트'서 그린 동서양의 융합

올해는 한독수교 140주년이다. 1883년 11월 26일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과 독일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국토분단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독일연방공화국은 지형적 관계를 토대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는 파독 근로자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63년 체결된 광부협정에 따라 광부들은 독일 탄광에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파독 간호사들 또한 성실과 친절을 바탕으로 전문직업인의 역할을 다했고 오늘날 한독수호 관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가 지역 미술관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31일까지 2023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한

은암미술관, 31일까지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 프로젝트
세오·다그마 슈러 등 14명 초대
9일 작가와의 대화, 25일 콜로키움

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독일과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초대했다.

참여 작가는 김유섭, 송현숙, 세오, 황선태, 다그마 슈러, 다니 플뢰거, 베리트 예거, 사라 오-목크, 슈테판 쾨, 요하네스 뷔트너, 엘리자베스 하일, 토비아스 베커 등 14명이다. 이들은 회화, 영상, 미디어, 사진, 설치작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정여석회화예술장은 "세계의 질서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과 독일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미래 지향적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에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독일 예술의 변모와 한국 예술의 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시실 1층에 들어서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전시 안내 문구와 마주



광주 은암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한독수교140주년 기념 프로젝트 '터닝 포인트'를 연다.

한다. 오늘의 시대가 '전환의 시대'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전 세계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위기와 기대가 혼종하는 시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환의 의미를 새삼 사유하게 한다.

광주 출신 세오 작가의 '나의 집에 낮은 나'는 동서양의 문화적 해석을 다채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세오 작가는 원래 한지를 꼬아 붙이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작품에선 한국인의 정체성, 그리움 등이 배어나온다.

물과 하늘, 수초와 나무는 사물의 기초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다른 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적인 물과 하늘 등의 자연 배경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비롭고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사물의 선이 굵다. 그림에도 화폭에 드리워진 서정적인 감성, 자연에 심상을 투영하는 느낌은 한국적

이다. 세오 작가는 "유럽 고객들은 내 작품에서 동양적 철학과 명상적 분위기를 느낀다며 좋아한다. 동양과 서양의 기법, 정신을 잘 융합했다는 것이다. 한국 관객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다. 독일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색채가 느껴진다고 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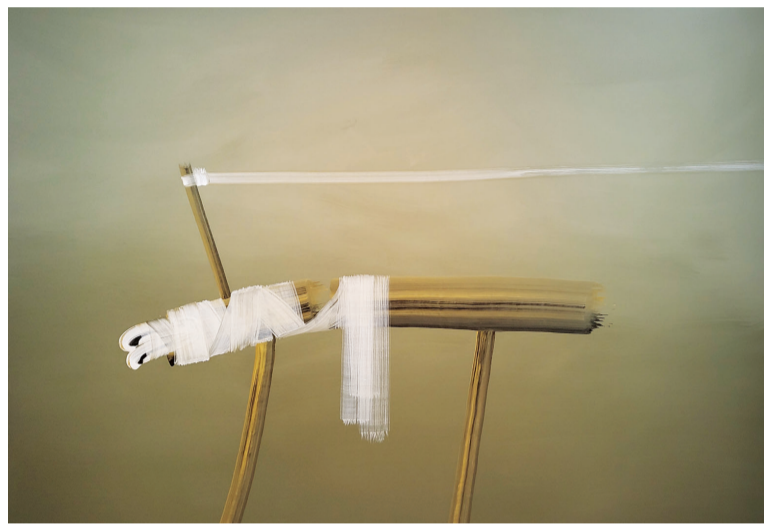
송현숙 작가의 '28획'은 파독 출신 간호사다. 획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는 심오하다. 오랫동안 독일에 사는 동안 작가의 내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였을 것이다. '28획'은 부러진 나무를 봉대로 감은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간호사와 예술가라는 정체성이 겹쳐 있다. 한국의 귀얄 붓으로 단숨에 긁는 한 획에서 동서양의 요소가 어우러진다. 절제된 화법으로 표현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먹먹함 그 자체다.

다그마 슈러의 영상 작품은 인간의 뇌를 신경과학 이론에 접목해 초점화한다. '꿈꾸는 것은 그 자신에게 남겨진 마음'이라는 작품은 추상적인 꿈의 풍경과 디지털 환경을 접목했다.

소셜 미디어, 텔레비전, 잡지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과 행동을 작품으로 구현한 엘리자베스하일의 작품은 데이터에 대한 민감성을 모티브로 한다. 관람객은 직접 'READ & WRITE' 작업에 응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데이터가 예술 작품의 일부가 된다. 작업이 관객의 참여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매개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전시와 아울러 작가와의 대화(9일), 썸머 콜로키움(25일)도 마련돼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송현숙 작 '28획'

“세상을 구할 중요한 서찰을 전해야 한다”

연극 '서찰을 전하는 아이'
26일 북구문화센터

교과서 속 한 줄짜리 짧은 글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사건들을 연극으로 만나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공연예술 창작단체 에이지프로젝트는 연극 '서찰을 전하는 아이' (사진)를 오는 26일 오후 3시 북구문화센터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20만 독자가 읽은 한운섭의 역사문학 부문 베스트셀러 '서찰을 전하는 아이(푸른숲주니어)'를 원작으로 서사의 시공간을 넓혔다. 1884년 조선을 배경으로 '서찰'을 전하는 열세 살 소년의 성장드라마를 초점화해 재창작했다.

작중 보부상과 아이는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장돌뱅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중 '서찰'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아버지와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떠난다. 서찰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세상을 구하고 한 사람을 구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만 알려준다.

긴 여정 중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이는 혼란스러워진다. 남겨진 서찰은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 수신인도 적혀있지 않으며 내용은 암호 같은 한자어만 이뤄져 있다. 아이의 머릿속에선 '서찰이 세상을 구할 만큼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만 맴돈다.

작품은 한양에서부터 백양사, 피노리, 오산까지 400km의 조선 국토를 종주하는 로드 무비 형식을



차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다름아닌 장터에서 익혔던 '소리'가 그것이다. 작품은 19세기 조선의 모습을 '소리'를 매개로 전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작·연출은 문화동네 어린이문학상, 대한민국연극제 연출상 등을 수상한 한운섭이, 예술감독은 김도훈이 맡았다. 아이 역에 양소영이 오며 아버지(이

광현), 보부상(장기용), 김경천(김학철) 등이 연기한다.

한편 이번 작품은 한국문화재단 연합회가 주최하는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전석 1만 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티켓링크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연세대 음대생들 음악잔치

연세대 총동창회 광주전남지회, 1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전남 출신의 연세대 음대 재학생들이 클래식 음악 잔치를 펼친다. (사진)

연세대 총동창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진만, 이하 광주전남지회)는 '연세의 향연'을 오는 11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광주전남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1970년대 명성이 자자했던 연세의 향연을 재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세의 향연은 1980년대 휴식기를 가진 뒤 30년 만인 2010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악단 '연세대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통해 다시 명맥을 이어왔다.

무대에는 지역출신의 성악전공 재학생 8명이 오를 예정. 성악과에 재학 중인 소프라노 차예은(문정예교 졸업)과 조윤지(광주예교 졸업), 이예은(전남예교 졸업), 강소현(화순교 졸업)

및 임예지(광주예교 졸업), 이수아(광주예교 졸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테너 서동은(전주예교 졸업), 바리톤 문진홍(전남예교 졸업), 피아니스트 박영서 등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들은 무대에서 오페라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라보엠', '돈 카를로' 등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아울러 졸업생 특별공연도 준비돼 있다. 플루티스트 이주혜(광주예교 졸업), 피아니스트 조사무엘(광주예교 졸업)이 찬조 출연해 계년의 '리플레토 환상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회 김진만 회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주춤했던 공연 '연세의 향연'을 부활시키겠다"며 "음악을 통해 지역민과 교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회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국악단체 열쑤, 타악 콘서트 '락(樂)의 로(路)' 12일 광산문화예회관

'두드림'이 주가 되는 타악 퍼포먼스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겨움이 있다. 강렬하면서도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이 주는 힘이다.

국악단체 열쑤(총감독 고창길)는 타악 콘서트 '락(樂)의 로(路)'를 오는 12일(오후 5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연다. (사진)

젊음의 상징과 같은 락 장르와 전통 타악기의 만남을 기치로 내거는 이번 무대는 즐거운 음악(樂)을 울리며 음악의 길(路)을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대에서는 전통 타악기들의 연주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먼저 만난다. 여러 크기의 북을 모은 모듬북부터 대표적인 관악기 태평소 등 사물놀이에서 사용되는 여러 악기들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장구 바이러스'는 판공에서 화려한 발림과 가락을 선보이는 '삼도설장구'에 서양악기의 음색을 더했다.



그믐날 밤 정취를 타악기 핸드팬을 통해 몽환적으로 묘사하는 '그믐지다', 퓨전타악 '구름 위의 산책' 등은 다채로운 락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족의 꿈과 현실을 담아내는 '아리랑&꿈' 무대도 예정돼 있다. 김양근, 고창길, 노준영, 조한, 김현숙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

한편 이번 공연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의 202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펼쳐진다. 오는 11월 18일(오후 2시, 5시)에는 가족연희극 '꼭꼭 숨어라! 토선생 찾기'도 예정돼 있다. 전석 1만 원. 문의 광산문화예회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기후위기 마을 실천 행동 '광주예술로' 진행

기후위기와 관련 마을의 실천을 고민하며 이를 예술적인 감성으로 해결하고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4년째 추진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지역사업)'_광주예술로(광주예술로)가 그것. 광주예술로는 지역 기업·기관(마을)의 조직문화나 상품개발 등을 예술인들과 협업을 매개로 해결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올해 '광주예술로'는 14개 기업·기관(마을)과 70명의 예술인들이 14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문흥동 맥문동 숲길에서 열리는 마을축제 '숲의 별곡'이 진행됐다. 올해 처음

참여한 '문산마을 공동체(대표 박태규)'는 협업 활동 팀 '울망출망'과 '기후위기 마을예술행동'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예술가와 함께하는 지구별 친구'는 참여자가 기후위기 실천단(꿈틀이)이 돼 세균맨의 방에 굴하지 않고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직접 체험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에도 많은 기업·기관(마을)이 참여해 예술적인 활동을 매개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